

## 제19차 IUFRO(국제임업연구기구)대회 참가기

윤 광 배 / 건국대 교수

본대회는 세계 임학자들의 연구 및 기술 등을 상호 교환하고 토론하는 회의로 1892年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임업연구관들이 동독 Eberwald에서 삼림연구 연합회를 만든지 19차 IUFRO대회에 이르기까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삼림 과학자들의 올림피아라 할 수 있는 대회이다.

제19차 캐나다 Montreal대회는 “삼림과학-IUFRO 제2세대에 들어가며”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계 127개국 2,500여명의 삼림과학자들이 참석한 회의였다. 소련, 중국을 포함 동구와 북구 및 환태평양의 여러학자들이 참석했으나 불행히도 북한의 학자들은 볼 수 없었다.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공식회의의 일정이었고 회의 중간 8일에는 In-Congress tour가 각 분과별로 진행되었다. 또 8월 12일부터는 3박 4일 또는 10일 동안 계속되는 17개 코스의 연수 Excursion이 실시되었다.

지난 1986년 18차 유고슬라비아 Ljubljana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중점 연구과제 대기 오염문제와 열대지역의 삼림 파괴에 대해서는 IUFRO의 특별 program을 통해서 대응하도록 조치되었다.

개회식에서 삼림부 장관 Frank Oberle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세계의 삼림

자원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삼림과학의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이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간의 수평적이고 지속된 연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적, 경제적 목적들을 집약화시켜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각 분과별로 토의, 주제발표가 계속되었다. 참고로 각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분과; 삼림환경과 조림, 2분과; 삼림식생과 삼림보호, 3분과; 삼림작업과 기술, 4분과; 계획·경제·성장 및 수확·경영과 정책, 5분과; 삼림생산, 6분과; 일반사항 등.

Montreal의 회의장은 Palais des Congres로 우리나라 무역센터 종합전시장 같은 곳으로 각종 보안 장치가 완벽한 국제 컨벤션 센터였다.

아래층에서는 삼림과학에 이용할 수 있는 software의 홍보 또 각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단행본 및 journal을 비롯하여 캐나다를 상징하는 각종 목각제품들 또 IUFRO에서 공모해서 입상된 Poster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필자도 Wisconsin 대학의 Buonigiorno 교수와 공동번역했던 삼림경영 경제학 책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 8일에 참가한 In congress

tour은 McGill대학 부속 McDonald 수목원을 탐방하는 일정이었다. McDonald College의 수목원은 나무마다 표찰을 부쳐 수목을 확인하는 수목원이 아니라 교수, 학생, 연구원 누구나 연구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는 고정시험구였다. 수종별·연령별·조사구별로 10 acre 규모로 조성된 평지 시험구였다. 수목원 내에는 캐나다 상징인 사탕단풍나무에서 maple 시럽을 정제하는 100여년 이상된 통나무집을 전시하고 있었다.

일행중 만주지방의 동북림 대학에서 생태학을 강의한다는 이경문 교수를 사귄 수 있었다. 수목원 방문을 마치고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통나무집 민속음식점으로 안내되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유명한 그 음식점은 3대에 걸쳐서 전통 캐나다식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모든 음식은 집에서 요리한 것이었다. 회의기간 중 회의장 옆에서는 Seminar poster 등의 연구 자료를 전시하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에는 삼림부장관이 Farewell Banquet가 성대하게 참석한 모든 참가자에게 full course의 정찬이 제공되었다. 한가지 인상깊었던 것은 2000여명에게 제공된 정찬이라 두시간여 동안의 식사가 끝나자 음식을 만든 주방장에서부터 말단에 이르는 30여명의 주방장들의 행진까지 있었다.

마지막 폐회식에서는 올해부터 4년동안 각 분과별로 선정된 새로운 위원장의 소개와 1992년 IUFRO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를 통일된 독일의 Berlin에서 갖는다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19차 IUFRO Montreal 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대 임업활동계획(Tropical Forestry Action Plan)에 규정된 삼림연구원

사이의 국제협력과 필요한 연구프로그램의 상호 협동 즉 각 분과별 상호 협조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계획(SPDC), 국제농업연구를 위한 협의 단체(CGIAR),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림임업연구협의회(ICRAF), 국제열대림용재협회(ITTO), 등과 연계하여 IUFRO는 국제기구들과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임업의 역할에 관계하는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 대한 확대 및 새로운 방향의 전환지다.

세째, 삼림연구소들의 설립 및 강화추진 네째, 국제적 삼림과학 공동체들은 과학적 발견을 통한 정보를 다른 기구들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하는 의무규정을 둔다.

다섯째, 삼림연구기금을 확대하고 실체화 시킨다.

이어 폐회식후 각 분야별로 Post Excursion에 들어갔다.

필자가 19차 Montreal IUFRO대회를 통해서 느꼈던 점은 삼림에 관한 연구가 나무, 숲 뿐만 아니라 삼림에 있는 살아있는 동·식물은 물론 주위의 모든 환경 자원에 대해서 총체적인 삼림과학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학술 대회보다도 중점과제로 선정했던 회의라고 느꼈다.

또 광대한 삼림자원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도상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을 포함하는 열대우림의 지구 곳곳이 파괴되어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기후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IUFRO대회 결의문에서도 채택된 것과 같이 국제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공동연구 프로그램개발 등 공동대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 회의였다. ★